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주님 공현 대축일 (2026년 1월 4일)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이사야 60, 2)



The Magi by Henry Siddons Mowbray(1858-1928), 1915 Oil on Canvas,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모브레이 (Henry Siddons Mowbray)는 1870년대 중반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곧 미술로 진로를 바꾸어 파리의 보나 스튜디오 (Bonnat Studio)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그는 1888년에 클락 상(Clark Prize)을 수상했으며, 이후 뉴욕시에 자신의 작업실을 열었다. 1903년에는 미국 로마 아카데미 (American Academy in Rome)의 이사를 역임했고, 국립미술원 (National Academy)의 회원이기도 했다. 그의 개인 작품은 스미소니언 미국미술기록보관소 (Smithsonian Archives of American Art)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 2, 2)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성가 198번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Pie Pellicane

성체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틴 성가

1. 자 비 하 신 주 여 선 하 신 주 여
2. 성 체 성 혈 안 에 주 님 계 심 을
1. Pi- e pel- li- ca- ne, Je- su Do- mi- ne,
2. Je- su quem ve- la- tum nunc a- spi- ci- o,

더 러 워 진 영 혼 셋 어 주 소 서
굳 게 믿 어 주 계 나 아 가 오 니
me im- mundum mun- da tu- o san-gui- ne,
o- ro, fi- at il- lud quod tam si- ti- o;

고 귀 하 온 주 의 흘 리 신 피 는
목 마 름 이 없 는 영 생 의 샘 물
cu- jus u- na stil- la sal- vum fa- ce- re
ut te re- ve- la- ta cer- nens fa- ci- e,

온 세 상 을 구 원 하 시 리 로 다
주 여 우 리 에 계 주 시 옵 소 서
to- tum mun- dum quit ab om- ni sce- le- re.
vi- su sim be- a- tus tu- ae glo- ri- ae.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1-12)

1 예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말씀이 이루어졌다.**”(요한 2,23)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AA2)
-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2,15)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간이나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국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믿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느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NV2)
- “**이루어졌다.**”(요한 2,23)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내 욕심 때문이 아닐까 하여 기도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느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느낍니다.(NV2)
- “**자리를 잡았다.**”(요한 2,23) 삶의 고난을 겪어본 이들에게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며, 많은 어려움을 지나 이제 비로소 삶에 정착하고 안정을 찾았음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NV2)
- “**이루어 지려고**”(요한 2,15) 이 구절은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와 희망을 줍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NV2)
- “**가서 자리를 잡았다.**”(요한 2,23) 잊은 이사를 경험했거나 정착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더욱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거처를 정하는 것을 넘어, 안정과 소속감을 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NV2)
- “**내 아들**”(요한 2,15)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찾게 되고, 기도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NV2)
-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요한 2,23) 새해를 맞아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실망 대신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NV2)
-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요한 2,23) 이 구절은 하느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하느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NV2)
-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요한 2,15)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TR5)
-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요한 2,22)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RC1)
-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요한 2,23)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RC1)

-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요한 2,15)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부름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피신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지혜와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또한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RC2)
-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요한 2,13)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라는 말씀은 답을 주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RC2)
-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요한 2,23) 우리는 각자의 사정으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국가, 지역, 교회 공동체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받아들여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사람들 안으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으로 녹아 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C2)
-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요한 2,13) 오늘 미사 복음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갈등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갈등할 때마다 이렇게 분명한 표징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과 이끄심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RC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집 셀라 166번 “로고스 찬가”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로고스 찬가

166

Fr.김태진

Mal c'm i sa ram i re si ar e u ri ga un de ge se on ne u ri n s
그 분 의 영 광 을 보 았 네 그 분 그리 스도이 시 네
1. 한 처 음 온 천 지 가 창 조 되 기 전 부 터
2. 모 든 것 말 씀 통 해 생 겼 네 생 겸 났 네
말 씀 은 하느 님과 함께 계셨 네 그 분 과 같은 분 이 시 네
모 든 것 말 씀 통 해 생 명 을 얻 고 그 분 우 리 의 빛 이 시 네
Mal c'm i sa ram i re si ar e u ri ga un de ge se on ne u ri n s
그 분 의 영 광 을 보 았 네 그 분 그리 스도이 시 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고 새 복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초대받은 은총의 해입니다.

2025년 10월 9일 레오 14세 교황께서 발표하신 첫 사도 권고『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 현실을 보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목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 권고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알려줍니다. 교황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의 사건입니다. 비천하고 힘없는 이들과의 만남은 역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5)라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가난한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것을 당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교회 안팎에서 참여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존엄과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조에서 배제되거나 문화적·영적으로 소외된 이들까지 포함합니다.

1. 어린이와 청소년 사목

희망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AI 시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어린이를 환영하고 돌볼 줄 모르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라고 단언합니다(『최종 문서』 § 61).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와 책임을 맡은 분들은 선교적 잠재력을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 학령기에 맞는 충분한 사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간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생애 가장 순수한 시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저마다의 성소를 꽂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청장년 사목

새로운 가난한 이들로 ‘청장년’ 층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청장년 젊은이들이 직장과 가정, 사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돋는 사목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 청장년 젊은이들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이 조건 없는 사랑과 격려, 인정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 216, 218 참조). 또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40~50대 부모 세대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과 환경을 조성하여 일관성 있는 사목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노인 사목

우리는 성경에서 노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시선에서 노년은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며, 노인들은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첫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외로움과 버림받음에서 해방을 경험하도록 돋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교황 레오 14세,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2025.7.27.).

4. 이주민 사목

“이주의 경험은 하느님 백성의 역사와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도 우리 가운데 ‘낯선 이’로서 사셨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처럼 길을 걷는 이들을 동반합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는 가까이 다가감과 환대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부당한 이주민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 85-86). 이주민은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언제라도 위협이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본향을 향한 순례를 이어가는 하느님 백성입니다.

5. 생태환경 사목

기후변화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자연재해를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으로 파괴된 자연의 애끓는 통곡이자 부르짖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교구민 전체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마다의 일상 안에서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본당 생태환경분과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구는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물질 중심주의와 버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도록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미래 세대가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구설정 60주년 은총의 해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이주민과 생태환경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실천적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이들을 단순히 사회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 104)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공동체를 이룰 때, 시노달리타스는 우리 사목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11월 23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천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